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비교

## A Comparison of the Nurses Image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강미란\*, 정경숙\*\*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Mi-Ran Kang(63rkdal@cs.ac.kr)\*, Kyeong-Sook Jeong(jksbook@hanmail.net)\*\*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정도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C시 소재 일 간호대학 학생 400명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chi^2$ -test로, t-test, ANOVA, ANC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임상실습 경험군 평균평점 3.5±0.5, 임상실습 미경험군 평균평점 3.7±0.5로 두 집단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750.2, p<.001). 또한 간호사 이미지 하위영역의 전통적 이미지(F=3631.5, p<.001), 사회적 이미지(F=2872.5, p<.001), 전문적 이미지(F=4022.9, p<.001), 개인적 이미지(F=1812.9, p<.001)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후 간호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임상현장과 간호대학 뿐 만 아니라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중심어 : | 간호사 이미지 | 임상실습 | 간호대학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nurses' image perceived by two group of nursing students a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non-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is study used 400 questionnaires from nursing students in C city to collect data from September 2 to September 9, 2014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8.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2$ -test, t-test, ANOVA, ANCOVA. According to the result, The nurse imag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F=4750.2, p<.001). Also, the traditional image(F=3631.5, p<.001), social image(F=2872.5, p<.001), professional image(F=4022.9, p<.001), and personal image(F=1812.9, p<.001) of the nurse image sub-domai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image of nurses afte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continuous efforts will be needed not only in clinical field and nursing college's efforts but also in policy support for nurses' independent work expansion.

■ keyword : | Nursing Image |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 Nursing Students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간호는 학문적 발전과 함께 전문직으로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질적인 간호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영역에서 소비자들의 의료에 대한 높은 질적 요구로 인해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접수일자 : 2016년 12월 22일

수정일자 : 2017년 02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3월 05일

교신저자 : 정경숙, e-mail : jksbook@hanmail.net

[1][2].

이렇듯 간호학문의 눈부신 발전과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간호사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도덕성과 윤리성, 나이팅게일과 백의의 천사 같은 전통적인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나 사회적 지위와 자율성, 독자적인 역할 측면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낮고 의사의 보조 역할과 같은 정형화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다[3][4]. 이처럼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일반인들에게 간호교육이나 간호 실무에서 간호사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주게 되며 간호 수요를 억제하게 되고 간호 전문직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나아가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5]. 그러므로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 정립은 간호 대상자들에게 보다 향상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 간호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라 생각된다[6]. 또한, 사실상 여성적인 직업인으로서만 저평가 받았던 과거의 간호사 이미지와는 다르게 최근 경제위기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은 여전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간호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간호사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인식하는 등[7] 간호사의 이미지는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미래의 전문직 간호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고취하는 것은 임상실무적인 면에서 전문직 사회화를 증진시켜 간호사로서 정체성을 내면화시키고 발달시킴으로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하고 간호사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1][8].

한편, 간호교육의 목적은 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간호문제를 다루고 이론을 실제에 적용시켜 지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기르는데 있다[9]. 특히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에게 중요한 교과과정으로 책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조화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10],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습득하고 간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11].

간호대학생들이 가지는 간호사 이미지는 처음에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는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간호교육을 받으면서 간호에 대한 관점이 변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간호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신념, 가치 윤리적 표준 등을 자기 이미지와 행동의 일부로 내면화하여 받아들여지게 된다. 실제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가 숙련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직업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는 등의 전문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높다[1]. 이처럼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임상이나 지역사회 등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12]. 그러나 임상실습교육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임상실습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하여[13] 임상실습이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임상실습 경험유무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를 확인함으로써 간호교육과 임상실습의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임상현장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간호사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학생들은 간호사들을 청결하고 단정하며 국민 건강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14],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12]. 또한 간호사의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었을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8][13], 첫 임상실습 전과 후에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중 실습 후에 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9][15].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비교 연구는 10여년 전의 박미화와 양진주의 연구[9]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정도를 비교하여 확인

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간호교육과 임상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정도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문항별 간호사 이미지 정도를 파악하여 비교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이며, 연구대상은 C시 소재 일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로,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해당학교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G\*power program 3.1.9에 근거하여 F-test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medium .25, 검정력 .8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각각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는 각 200명씩 총 400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410부를 배부하여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10부를 제외한 4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과 간

호사 이미지 28문항을 포함한 전체 35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1.1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는 양일심[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전통적 이미지 12문항, 사회적 이미지 7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개인적 이미지 3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5]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94$  이었다.

### 4. 윤리적 고려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학생들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이 완료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응답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것이고 연구 종료 후 곧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Window 18.0 program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임상실습 경험군과 임상실습 미경험군의 동질성 검사는  $\chi^2$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차이는 t-test와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의 간호사 이미지 비교는 동질성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과 종교를 공변수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으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사 (N=400)

일반적 특성	구분	실습 경험 (n=219)		심습 미경험 (n=181)		$\chi^2$	p
		n	%	n	%		
성별	남성	23	10.5	27	14.9	1.766	.224
	여성	196	89.5	154	85.1		
연령	29세 미만	199	90.9	177	97.8	9.128	.010
	30-39세	15	6.8	4	2.2		
	40세 이상	5	2.3	0	0		
종교	기독교	34	15.5	24	13.3	10.906	.028
	불교	56	25.6	28	15.5		
	천주교	18	8.2	9	5.0		
	기타	3	1.4	3	1.7		
	무	108	49.3	117	64.6		
전공 선택 동기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42	19.2	45	24.9	5.425	.491
	입시성적에 맞추어서	7	3.2	9	5.0		
	가족의 권유로	29	17.8	28	15.5		
	졸업 후 취직이 잘 되므로	83	37.9	57	31.5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므로	12	5.5	7	3.9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32	14.6	33	18.2		
전공 만족도	만족스럽다	60	27.4	55	30.4	0.590	.745
	보통이다	127	58.0	103	56.9		
	만족스럽지 않다	32	14.6	23	12.7		
가족내 의료인 유무	있다	56	25.6	60	33.1	2.764	.099
	없다	163	74.4	121	66.9		
입원경험 유무	있다	103	47.0	84	46.4	0.015	.920
	없다	116	53.0	97	53.6		

대상자 중 여성이 85%를 차지하여 두 군의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은 29세 미만이 90% 이상 차지하였으나 임상실습 경험군은 40세 이상이 2.3%, 임상실습 미경험군은 40세 이상이 없어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의 경우 임상실습 경험군은 불교가 25.6%,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49.3%였으나 임상실습 미경험군의 경우 불교가 15.5%,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64.6%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군 모두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졸업 후 취직이 잘 되기 때

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0% 이상을 차지하여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대부분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족 내 의료인 유무와 입원경험 유무 또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질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차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차이는 일반적 특성에서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령과 종교를 공변량 처리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임상실습 경험군의 간호사 이미지는 평균 97.3±15.2점(3.5±0.5점)이었으며, 임상실습 미경험군의 간호사 이미지는 103.1±13.7점(3.7±0.5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F=4750.2, p<.001)를 나타내었다.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영역을 살펴본 결과 전통적 이미지(F=3631.5, p<.001), 사회적 이미지(F=2872.5, p<.001), 전문적 이미지(F=4022.9, p<.001), 개인적 이미지(F=1812.9, p<.001)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차이

영역	실습경험 (n=219)	실습 미경험 (n=181)	F	p
	M±SD	M±SD		
간호사 이미지	97.3±15.1 (3.5±0.5)	103.1±13.7 (3.7±0.5)	4750.2	<.001
전통적 이미지	42.1±7.6 (3.5±0.6)	44.7±6.6 (3.7±0.6)	3631.5	<.001
사회적 이미지	22.6±4.4 (3.2±0.6)	23.2±4.1 (3.3±0.6)	2872.6	<.001
전문적 이미지	22.7±3.7 (3.8±0.6)	24.3±3.8 (4.1±0.6)	4022.9	<.001
개인적 이미지	9.9±2.4 (3.3±0.8)	10.9±2.5 (3.6±0.8)	1812.9	<.001

p<.001, Age and religion-adjusted nurse image betwee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non-clinical practice experience group.

#### 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문항별 간호사 이미지 차이

간호사 이미지 모든 문항은 임상실습 경험군과 임상실습 미경험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표 3.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문항 별 간호사 이미지

영역	실습 경험 (n=219)		실습 미경험 (n=181)		F (p)
	M±SD	Rank	M±SD	Rank	
<b>전통적 이미지</b>					
1.간호사는 깨끗하고 단정하다.	3.7±0.8	9	4.1±0.7	3	11.1 (<.001)
2.간호사는 하는 일이 정확하다.	3.6±0.9	11	3.8±0.8	12	1.8 (.151)
3.간호사는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며 지지해준다.	3.4±0.9	16	3.6±0.8	18	1.9 (.131)
4.간호사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3.6±0.8	13	3.7±0.7	13	2.1 (.104)
5.간호사는 책임감이 강하다.	3.8±0.8	3	4.0±0.8	5	1.0 (.379)
6.간호사는 헌신적이다.	3.5±0.9	14	4.0±0.9	7	7.5 (<.001)
7.간호사는 협조적이며 대인관계가 좋다.	3.4±0.8	18	3.6±0.9	20	2.2 (.087)
8.간호사는 신뢰감을 준다.	3.7±0.8	7	3.9±0.8	10	2.8 (.042)
9.간호사는 환자의 요구에 즉시 응한다.	3.4±0.9	20	3.6±0.9	20	1.9 (.135)
10.간호사는 백의의 천사로 불릴만하다.	3.4±1.0	19	3.6±0.9	17	2.3 (.077)
11.간호사는 환자우선주의로 일 처리 한다.	3.3±0.9	21	3.4±0.9	24	0.7 (.525)
12.간호사는 편안하게 해준다.	3.3±0.8	22	3.5±0.8	22	2.2 (.086)
<b>사회적 이미지</b>					
13.간호사는 지적수준이 높다.	3.8±0.7	6	4.0±0.8	7	4.0 (.008)
14.간호사는 좋은 상담자이다.	3.6±0.8	12	3.5±0.8	23	0.7 (.548)
15.간호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다.	3.1±0.9	26	3.2±0.9	26	0.7 (.549)
16.간호사는 건강교육자이다.	3.7±0.8	7	3.7±0.8	15	2.4 (.064)
17.간호사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	3.1±1.0	25	3.3±0.9	25	1.4 (.229)
18.간호사는 독자적으로 환자 간호를 수행한다.	2.9±1.0	27	2.8±1.0	27	0.5 (.712)
19.간호사는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와 함께 일한다.	2.4±1.1	28	2.8±1.2	28	3.2 (.023)
<b>전문적 이미지</b>					
20.간호사는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3.1±0.8	4	4.1±0.8	4	4.3 (.005)
21.간호사는 적극적으로 일한다.	3.7±0.7	10	3.9±0.9	11	2.6 (.050)
22.간호사는 직업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3.5±0.9	14	4.0±0.8	5	10.0 (<.001)
23.간호사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	4.0±0.7	1	4.3±0.8	1	6.7 (<.001)
24.간호사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	3.9±0.8	2	4.2±0.7	2	9.4 (<.001)
25.간호사는 조직적으로 일처리 한다.	3.8±0.8	5	4.0±0.8	7	3.6 (.015)
<b>개인적 이미지</b>					
26.간호사는 불친절하다.	3.3±0.8	23	3.6±0.9	16	6.5 (<.001)
27.간호사는 이기적이다.	3.4±0.9	17	3.7±0.9	14	5.7 (.001)
28.간호사는 짜증 섞인 투로 이야기한다.	3.2±1.0	24	3.6±1.0	19	5.2 (.002)

순위를 살펴보면 전통적 이미지 영역의 ‘간호사는 헌신적이다’문항은 임상실습 경험군은 14위로 조사되었으나 임상실습 미경험군의 경우 7위로 나타나 가장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이미지 영역의 ‘간호사는 좋은 상담자이다’문항의 경우 임상실습 경험군은 12위였으나 임상실습 미경험군은 23위, ‘간호사는 건강교육자이다’ 문항은 임상실습 경험군은 7위, 임상실습 미경험군은 15위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전문적 이미지 영역의 ‘간호사는 직업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문항은 임상실습 경험군은 14위였으나 임상실습 미경험군은 5위로 나타났다. 개인적 이미지 영역의 ‘간호사는 불친절하다’문항의 경우 임상실습 경험군은 23위, 임상실습 미경험군은 16위로 나타났다.

간호사 이미지를 문항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통적 이미지의 경우 ‘간호사는 깨끗하고 단정하다’, ‘간호사는 헌신적이다’, ‘간호사는 신뢰감을 준다’는 문항이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이미지의 경우 ‘간호사는 지적수준이 높다’, ‘간호사는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와 함께 일한다’는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간호사의 전문적 이미지와 개인적 이미지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유무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 정도를 비교하여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군 평균 97.3±15.2점(평균평점 3.5±0.5)보다 임상실습 미경험군 평균 103.1±13.7점(평균평점 3.7±0.5)으로 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750.2, p<.001). 이는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8]와 3학년과 4학년보다 1학년과 2학년의 간호사 이미지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9]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간호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습은 이론의 실제 적용

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지식과 기술을 간호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임상실습은 간호사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곁에서 관찰하면서 간호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정체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15]. 그러나 최근의 임상현장은 환자의 권리가 중요시되면서 간호사는 환자와의 갈등뿐 아니라 비인격적인 의사의 태도, 간호사간의 이해 부족, 환자들의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차별 대우, 동료들 간의 비인격적 처신 등의 인간관계 부조화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16]. 간호대학생은 이러한 임상의 현 갈등들을 임상실습 시 경험하게 될 뿐 만 아니라 임상실습에서 간호행위 시 학교에서 학습한 부분과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의 차이, 일부 간호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비교육적 태도 등을 경험함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실망스럽고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17]이라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시 간호사를 보고 간호사 이미지를 주로 형성한다고 하여[18] 간호실무현장의 간호사의 모습은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9]. 뿐만 아니라 향후 간호사로서 간호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 간호 실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고려해 볼 때[19] 실제적으로 임상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간호사 이미지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현장의 간호사들은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학생이 보다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도 실습 전의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임상현장 선배들과의 실제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임상실습 후 간호대학생의 부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간호사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긍정적으로 되돌려 실제 간호사로 근무 시 보다 나은 간호사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임상실습 후 간호사 이미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첫 실습 후 간호사의 이미지가 실습 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15]도 있어 추

후 반복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간호사 이미지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두 군 모두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통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순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미화, 양진주[9]의 결과와 환자, 보호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양일심[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전문적 이미지는 높은 반면, “간호사는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와 함께 일한다”는 사회적 이미지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문적인 간호사의 업무나 활동에 대한 기사가 자주 소개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간호사에 대한 정보 획득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신의 미래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간호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 TV나 신문 뿐 만 아니라 간호대학생들의 인터넷 카페나 SNS를 이용한 네티즌 활동을 통하여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 보조 역할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의료법의 개정으로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역할이 확대되었으므로[20] 이를 간호교육 교과과정 속에서 충분히 교육하고 확대된 역할에 대하여 간호대학생 뿐 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 간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간호사는 좋은 상담자이다’, ‘간호사는 건강교육자이다’, ‘간호사는 독자적으로 환자 간호를 수행한다’ 문항은 임상실습 경험군이 임상실습 미경험군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결과[9]와 다르게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도에 전문간호사제도가 법제화된 후 점진적으로 임상에서 많은 전문간호사들이 전문가적 간호실무, 교육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1]. 최근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료에 대한 수가가 신설되면서 교육팀에 간호사가 포함되어 확대된 간

호사의 역할을 임상실습 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 되고 있다. 실제 암환자의 교육 및 상담의 경우 교육팀 자격요건에 중앙전문간호사가 명시되어 있고[22] 이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실제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된 의료환경에서의 간호사 역할들이 임상실습 전 간호사는 환자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독자적인 간호를 한다[23]는 간호대학생들의 막연한 인식이 임상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하면서 간호사 이미지를 보다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로 부터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환자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많은 다양한 질병에 의료보험 수가 지정이 논의되고 있어 추후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사 이미지 하위영역 중 전문적 이미지와 개인적 이미지 항목 모두 임상실습 경험에 따라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간호사는 직업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다' 문항의 경우 평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간호사가 전문직 종사자로서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복합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뚜렷한 소명감과 긍지가 요구됨[24]에도 불구하고 임상실습 경험군의 직업에 대한 긍지가 임상실습 미경험군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평생 간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전문직에 대한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경험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하여 미래의 간호사로서 보다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임상실습 경험군과 임상실습 미경험군의 간호사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임상실습 경험군의 경우 사회적 이미지가 부분적으로나마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후 간호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임상현장과 간호대학 뿐 만 아니라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사 이미지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 검증에 제언한다.

둘째, 임상현장에서 간호사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요인과 저해시키는 요인에 대한 조사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임상실습 경험군의 간호사 이미지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임상실습 경험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C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표본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최정, 하나선,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전문직사회화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5권, 제1호, pp.54-63, 2009.
- [2] 박성애, 엄영란, 정면숙, 정순영, 최경숙, “간호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Q방법론 적용,” 서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제6권, 제1호, pp.13-23, 1992.
- [3] M. Takase, E. Kershaw, and L. Burt, “Does public image of nurses matter?,” J Prof Nurs, Vol.18, No.4, pp.196-205, 2002.
- [4] 박진희, 일반, 편입 및 RN-BSN과정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비교, 전남대학교대학원, 2012.
- [5] 양일심, “간호사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간호행정학회지, 제4권, 제2호, pp.289-306, 1998.
- [6] 정명숙, “병원의 내부마케팅 제고를 위한 간호사 이미지 비교 연구 : 병원내부, 외부고객을 중심으로,” 임상간호연구, 제9권, 제2호, pp.68-80, 2004.
- [7] 윤지예,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간호사 본인의 이미지*,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8] 조현하, 김남희,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업성 핵심요소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4호, pp.548-557, 2014.
- [9] 박미화, 양진주,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제8권, 제1호, pp.107-121, 2002.
- [10] E. G. Sobel, “Self-actualization and baccaculate nursing student’s response to stress,” Nurs Res, Vol.29, No.4, pp.352-360, 1978.
- [11] 이정애, “간호대학생의 전문적 자아개념과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간호행정학회지, 제10권, 제3호, pp.325-334, 2004.
- [12] 성지아, 염은이, 도영숙,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798-809, 2014.
- [13]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 “간호학생의 간호이미지와 임상실습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제10권, 제2호, pp.219-231, 2004.
- [14] 김세은, 오승은, 임희진, 김미정, 김주희, 유지선, 신지애, 한마음, 김문실, “간호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사이미지,” 이화간호학회지, 제36권, pp.115-136, 2002.
- [15] 강현숙, 김원옥, “첫 임상실습이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제9권, 제3호, pp.379-387, 2002.
- [16] 김귀분, 김혜숙, 이경호, “간호사의 업무갈등,” 대한간호학회지, 제31권, 제3호, pp.492-505, 2001.
- [17] 김명애, 남승희, 김효은, “임상실습 초기와 종료 후의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인식 변화,” 기본간호학회지, 제11권, 제1호, pp.21-30, 2004.
- [18] 서은희,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간호행정학회지, 제15권, 제4호, pp.610-616, 2009.
- [19] 김미향, 노영희, 서해숙, “간호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제45권, 제3호, pp.41-52, 2002.
- [20] <http://www.koreanurse.or.kr/>
- [21] <http://kabone.or.kr/kabon02/index.php>
- [22] <http://www.koreanurse.or.kr/board/board.php?board=newspaper>
- [23] 김윤정,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전문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224-234, 2014.
- [24] 김양이, 신은정,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 비교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10권, 제1호, pp.23-49, 2013

## 저 자 소 개

## 강 미 란(Mi-Ran Kang)

정회원



- 200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조현병 환자 및 가족 간호, 지역사회 정신간호

## 정 경 숙(Kyeong-Sook Jeong)

정회원



- 200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종양, 유방암 생존자, 건강증진행위